

## 코울리지의 상상력과 “노수부의 노래”

강 상 덕\*

### 목 차

- I. 서 론
- II. 코울리지 상상력의 개념
- III. “노수부의 노래”에 나타난 상상력
- IV. 결 론

### I. 서 론

코울리지는 시인이었으나, 그는 또한 “동시에 심오한 철학자가 되지 않고서는 위대한 시인이 된적이 없었다”(Biographia Literatia, II, 19, 이하 BL로 칭함)는 그의 신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코울리지를 철학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문학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시이론과 문학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는 BL 13장에 정의된 유명한 상상력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초자연적인 시의 하나인 “노수부의 노래”에 적용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이 연구의 목적은 상상력의 이론과 연관치어서 그시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나의 주관심사는 따라서 어떻게 상상력이 그시에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서 해와 달의 역할에 관한 Robert Penn Warren의 지적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 자세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언급되어야 할 점은 코울리지의 상상력과 “노수부의 노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코울리지의 상상력과 그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말해 그들은 어떻게 상상력이 나오며 그시에서 어떻게 상상력이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Brett이 불평하듯이, “아무도 코울리지 자신의 시론의 관점에서 그것[“노수부의 노래”]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78).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Dep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 II. 코올리지 상상력의 개념

무엇보다도 우리는 코올리지 자신이 *BL*의 13장 마지막에 내린 잘 알려진 상상력의 정의를 살 펴봄으로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The IMAGINATION then, I consider either as primary, or secondary. The primary IMAGINATION I hold to be the living Power and prime Agent of all human Perception, and as a repetition in the finite mind of the eternal act of creation in the infinite I AM. The secondary imagination I consider as an echo of the former, co-existing with the conscious will, yet still as identical with the primary in the kind of its agency, and differing only in degree, and in the mode of its operation. It dissolves, diffuses, dissipates, in order to re-create; or where this process is rendered impossible, yet still at all events it struggles to idealize and to unify. It is essentially vital, even as all objects (as objects) are essentially fixed and dead.

코올리지는 여기서 상상력을 일차적 상상력과 이차적 상상력으로 구분짓고 있는데 그 둘 사이의 구별이 혼란을 가져온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후자는 전자의 “메아리”이고 똑같은 창조력의 일 부일 뿐 아니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차적 상상력은 “의식적 의지와 공존하고 있다.” 이와같이 Bate이 지적하듯이, 전자 즉 일차적 상상력은 인식속에 포함되어 있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무의식적 통일을 말하며 반면에 후자는 “예술에 있어서의 상상력의 더욱 의식적이고 제한된 사용, 그것이 물질 현상계를 향하는 것과 똑같은 창조적이고 생동적인 힘을 말한다” (161). 그렇지만, 이러한 구별도 무의미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보듯이 의식과 무의 식과의 대립은 “상상력의 수정하는 힘”에 의해 화합이 되기 때문이다.

코올리지 상상력의 기능은 *BL*의 12장에 있는 철학적 수준과 13장에 있는 시적 수준 사이의 중 재적 역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장을 볼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서 코 올리지는 서양 철학의 유래가 된 주관과 객관, 형식과 내용, 내면과 외면, 자아와 타자 등의 이 중적 대립 관계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코올리지에 의하면, “모든 지식은 객관과 주관의 우연 일치에 의존한다” (*BL*, I, 174)고 한다. 그는 객관을 “자연”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주관을 “자아 혹은 지성”과 연관짓고 있다. 이와같이 그는 두가지 대립적 요소 사이의 대조적 긴장 관 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그 둘 사이의 화합을 추구하고 있다. 코올리지는 계속 말한다. “모든 적 극적 지식 행위에 있어서 그 둘 상호간의 일치가 요구된다. 즉 의식적 존재와 그 자체로 무의식 적인 것 사이의 일치다... 지식 그 자체의 행위시 객관과 주관은 곧바로 결합된다” (*BL*, I, 174).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일치가 가능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일이다. 이 변증법적 대립 은 그들이 같은 것 사이의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대립 관계가 분리 해체되었을 때, 그들은 화합되고 하나로 통일된다.

코올리지는 상상력을 “esemplastic”이라는 신조어로 명명한다. 우리는 이 esemplastic power

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코울리지의 이 말은 그의 시 "The Eolian Harp"에 묘사 되어있듯이 아마도 "plastic" power를 뜻하는 것으로 그러한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리킨다. 상상력 혹은 esemplastic power는 따라서 주관과 객관, 의식과 무의식, 능동과 수동을 결합하는 힘이다. McFarland가 지적하듯, 상상력은 "I am"의 내적 세계와 'it is'의 외적 세계를 연결한다"(95). 다시 말해 상상력은 Natura Naturans와 Natura Naturata를 결합하는 것이다.

Richards에 의하면, 코울리지의 주관-객관 관계는 "마음의 상태들 사이에서 그러한 분리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인지하는 것과 형성하는 것은 같다. 주관(자아)은 그것이 인지하는 것으로 이입되고, 그것이 인지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것 자체이다. 그래서 객관이 주관이 되고 주관이 객관이 된다"(56-57). 거울 이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변증법적인 대립의 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라는 주관이 객관이 된다. 그러나 객관인 나는 주관의 원래 위치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관인 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코울리지의 상상력 이론은 그의 철학의 근본 원리인 대립의 화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상상력은 결합하는 것 이상의 힘을 의미한다. 그것은 수정하고 변형하는 힘도 포함한다. 코울리지가 말하듯이, "상상력의 수정하는 특성은 빛과 어둠 그리고 달빛이나 석양이 알려지고 익숙한 광경에 퍼져있는 갑작스런 매력"에 기여하는데 그 매력은 "그들 둘을 결합하는 실제성을 나타내는 것 같다"(BL, II, 5). 우리가 잠시 후에 보듯이, 빛과 어둠, 해와 달 사이의 대립은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두가지 마음이 작용하는 "노수부의 노래"의 시적 창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상상력의 화합 능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코울리지도, 워즈워드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작용의 문제는 자연이 인간에게 자연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힘을 불어넣음으로서 생명을 주느냐, 아니면 인간이 자연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힘을 불어넣음으로서 생명을 주느냐 하는 점이다. 코울리지는 아마도 그 두가지 방법으로 상상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Dejectin : An Ode"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주는 것을 받는다/그리고 우리의 생속에서만 자연은 살아있다"(We receive what we give/And in our life alone does Nature live"). 자연은 상상력에게 살아 있으며 상상력도 자연에게 살아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자연과 인간은 상상력의 창조에 있어서 서로 서로를 구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은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며 또 상상력은 자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인 것이다. 이것이 코울리지의 상상력이 그의 시에서 작용하는 방법의 일례이다. 상상력은 자연의 생명을 인식하는 힘을 갖고 있고 자연은 자연대로 상상력에 자연을 인식하는 힘을 부여한다. 자연이 생명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며,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코울리지의 상상력의 개념을 탐구해 왔는데 이제 그것이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상력에 화합하고 결합하는 힘을 주려면 마음이 인식에 있어서 능동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코울리지의 말

을 빌리자면 “깊은 감정과 심오한 지성”으로 부터 나오는 능동적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Ⅲ. “노수부의 노래”에 나타난 상상력

이러한 코울리지의 상상력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시적 창조에 관련된 정신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그것이 “노수부의 노래”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보도록 하자. 코울리지 자신은 그시에 대해 “순수한 상상력”의 작품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my endeavors should be directed to persons and characters supernatural, or at least romantic; yet so as to transfer from our inward nature a human interest and a semblance of truth sufficient to procure for these shadows of imagination that 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 for the moment, which constitutes poetic faith (*BL*, II, 6).

“노수부의 노래”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노수부는 누구인가?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코울리지는 노수부를 창조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서 혹자는 “그시는 현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Warren, 64)는 주장을 하였으며 Bowra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아무도 꿈속의 사건들이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종류의 필요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57). 어떤 때는 노수부의 여정이 실제의 여행처럼 보이기도 하고 배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때는 코울리지가 이 세상을 초월한 정신 세계를 창조하는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코울리지의 상상력은 우리를 현세내에서 부터 현세를 초월하는 데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방황하게 만든다. 그는 그의 상상력이 마음을 넓히고 의식을 확장하는 초자연적 세계의 비전을 창조하고 있다.

코울리지의 시에서 자연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상상력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 이 시의 진행은 어느 시점까지 달빛이 창조하는 일련의 상상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1부의 끝에서 두번째 연을 살펴보자. 남풍이 불어오자 신천옹새가 날아온다.

In mist or cloud, on mast or shroud,  
It perched for vespers nine;  
Whiles all the night, through fog-smoke White,  
Glimmered the white Moon-shine.

안개 속이나 구름 속에, 돛대나 돛대 밧줄 위에  
그 새는 아흐레 저녁을 앉았소:  
한편 밤새도록 하얀 안개 연기 속에  
흰 달빛이 어렴풋이 빛났었소.

여기서 우리는 코울리지의 상상력이 작용하는 것을 본다. 상상력이 “펼쳐지고” “흩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안개, 구름, 그리고 바람의 도래가 달의 상상력 아래서 주위의 자연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은 자연과 그 속에 사는 인간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우주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두가지의 대립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하나는 태양에 의해 대표되는 빛이며 다른 하나는 달에 의해 대표되는 어둠이다. 빛의 이미지는 낮, 선, 생명, 행복, 그리고 사랑과 같은 긍정적 개념들과 연관성이 있는 반면에 어둠의 이미지는 밤, 악, 죽음, 불행,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개념들과 관련이 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혼돈으로 빠지게 된다. 인간은 빛과 어둠사이의 서로서로 완전한 조화를 유지하는 대립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따른다면, Warren이 하듯이, 달을 선한 것과 그리고 태양을 악한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성립한다. 그는 좋은 일들은 달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고 나쁜 일들은 태양의 영향 아래 일어난다 (87)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수부가 신천홍 새를 죽인 것은 1부의 마지막 연에서 달이 처음으로 뜰 때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태양은 그 죄를 범한 후에 나타난다. Warren 자신도 선원들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띤 얼굴로 수부를 향해 몸을 돌리고 하나씩 하나씩 쓰러졌을 때 (1부 15, 16연) , "불행한 일들이 필경 자비로운 달의 영향아래" 일어난다고 나중에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달의 상징성을 위반하고 있느냐"고 Warren은 질문한다. 시를 통해서 볼 때 태양과 달에 관한 일관된 연관성을 찾아내기는 힘든 것 같이 보인다.

노수부는 신천홍 새를 죽인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아마도 그는 충동적으로 그것을 죽였을지 모른다. 그 죄의 결과로, 그는 벌을 받고 모진 고립과 소외의 고통을 받는다.

Alone, alone, all, all alone,  
 Alone on a wide wide sea!  
 And never a saint took pity on  
 My soul in agony. (4부 3연)  
 홀로, 홀로, 오로지 나 홀로  
 넓고 넓은 바다에 나 홀로!  
 어느 성인도 고쳐하는  
 내 영혼을 동정하지 않았소.

우리는 왜 벌이 그토록 가혹한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노수부의 선원들도 또한 벌을 받는다. 그들이 받아야 할 가장 가혹한 벌 중의 하나는 갈증이다: "And every tongue, through utter drought, /Was withered at the root; /We could not speak, no more than if /We had been choked with soot" (2부 13연).

우리는 그 새가 자연을 대표하는 새 이상의 새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기독교적 영혼을 상징하듯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수부가 저지르는 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듯이, 자연에 대한 죄이며, 상징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죄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느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노수부가 느끼고 있는 소외는 고통이다. 7부의 15, 16연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노수부의 소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시 사용되고 있다. Warren과 다른 비평가들이 해석하듯이, 이 시는 죄와 벌, 그리고 사함에 관한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구원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수부가 통과하는 여행의 과정은 원죄를 지은 인간의 원형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수부는 파괴의 도시를 떠나 천국의 도시를 향해 가는 존 번안의 천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병렬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벌을 받은 후 노수부는 구원을 받는다. 그의 구원은 “하늘로 올라가는” 달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것은 축복의 결과로 나온 상상력이 달빛에 비친 자연을 아름다운 것으로 감상할 때 절정에 이른다. 상상력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창조된다.

O happy living things! no tongue  
 Their beauty might declare:  
 A spring of love gushed from my heart,  
 And I blessed them unaware:  
 Sure my kind saint took pity on me,  
 And I blessed them unaware. (4부 14연).  
 오 행복한 생물들이여! 어떠한 말로도  
 이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으리:  
 사랑의 샘이 내 마음에서 솟아올랐소,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들을 축복했소:  
 분명히 나의 친절한 성인이 나를 동정했으리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들을 축복했소.

노수부의 구원은 그의 주위에 있는 “행복한 생물들”을 축복하는 행위에서 나온다. 축복 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서 상상적이며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결과인 것이다.

5부에는 비와 바람의 이미지가 있다. 문학에서는 물의 이미지는 전통적으로 생명과 연관이 있다. 이 시에 대한 주석이 설명하듯이, “성령의 은총으로, 노수부는 비로 인해 생기가 돌았다.” 그는 생기를 불어주는 비에 의해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축복받은 영령”이 된다. 이 시에서 비의 이미지는 상상력을 위해서도 또한 중요하다. 수부는 “포효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지 만, 이상하게도 바람은 불어오지 않고 그에게 와 닿지도 않는다. 우리는 단지 “다가오는 바람”이 있음에도 그 소리만을 들을 뿐이다. 5부에서 수부는 살아있는 사물들의 아름다움을 본다. 지금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듣기도 한다. 더구나 자연의 소리는 수부의 재생된 자연의 감각을 축하하는 데 도움을 준다:

Sometimes a-dropping from the sky  
 I heard the sky-lark sing;  
 Sometimes all little birds that are,

How they seemed to fill the sea and air  
With their sweet jargoning !

And now 'twas like all instruments,  
Now like a lonely flute;  
And now it is an angel's song,  
That makes the heavens be mute. (5부 16, 17연)

때때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종달새 노래를 나는 들었소;  
때때로 작은 새들이 모든  
바다와 하늘을 아름다운 지저귀음으로  
채우는 듯했소 !

또 어떤 때는 마치 온갖 악기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로운 피리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천사의 노래가 되네,  
하늘을 침묵시키는.

자연은 수부에게 그 소리로 영감을 불어 넣어 주며, 그의 상상력을 일깨워 준다. 바람에 의해서 창조된 음악은 코울리지의 시에서 영감이나 상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The Eolian Harp"에 나오는 음악을 연상하게 된다.

...And now, its strings  
Boldlier swept, the long sequacious notes  
Over delicious surges sink and rise,  
Such a soft floating witchery of sound  
As twilight Elfins make...

... ..

Where the breeze warbles, and the mute still air  
Is Music slumbering on her instrument.

Bear는 광경과 소리 사이의 조화는 "수부의 비전의 특징"이다(163)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The Eolian Harp"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

...the one Life within us and abroad,  
Which meets all motion and becomes its soul,  
A light in sound, a sound-like power in light,  
Rhythm in all thought, and joyance everywhere...

Bear에 의하면, 이러한 빛과 소리의 화합 그리고 그러한 조화의 근원으로서의 태양의 개념이 "노수부의 노래"에서 보여진다고 한다 :

Around, around, flew each sweet sound,  
 Then darted to the sun :  
 Slowly the sounds came back again  
 Now mixed now one by one. (5부 15연)  
 빙글빙글 감미로운 소리는 날아가더니  
 해에게로 쏜살같이 날아갔소 :  
 천천히 그 소리들이 다시 되돌아왔소  
 어떤 때는 섞여서, 어떤 때는 따로따로.

5부에서 마침내 수부에게 불어오는 바람은 “목장에 부는 춘풍 같은” 부드러운 미풍이다. 그것은 끊임없는 은총의 시간이다. 수부는 그가 받는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은총의 일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바다는 은총의 보호를 위해 달을 향해 쳐다본다. 마찬가지로 수부는 나중에 그의 고향의 광경을 확인하기 위해 하느님을 쳐다본다.

이야기는 7부에서 끝나는 데 거기서 수부는 숲속의 은둔자를 만나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청한다. 그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올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하느님이 만물을 사랑하듯이 그와 똑같이 만물을 사랑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교를 결혼식 하객에게 해줌으로서 그의 연설을 끝마친다 :

He prayeth best, who loveth best  
 All things both great and small;  
 For the dear God who loveth us,  
 He made and loveth all.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사랑하는 이가 가장 잘 기도하는 이라고;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사랑하시기에.

이 시의 도덕은 이 연에 의하여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은 우리에게 수부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 뿐만 아니라 자연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 자연,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 만일 코울리지가 “노수부의 노래”에서 어떤 비전을 창조한다면, 그것은 수부의 비전이다. 즉 인간, 자연, 그리고 하느님이 보편적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비전인 것이다.

## IV. 결 론

코울리지가 “노수부의 노래”를 “순수한 상상력”의 소산으로 규정한 것도 그 시가 형식과 의미의 유기적 통일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해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시의 유기적 통일이란 전체 속에 부분이 용해되거나,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가 아니다.



시란 그 조화나 통일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시의 내용을 형식에서 분리할 수 없듯이, 시의 부분과 전체를 분리할 수 없다. 전체 속에 부분이 있는 것이며, 부분을 떠난 전체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이다. 그 둘 사이의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 질때 비로소 살아있는 시가 존재하는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노수부의 노래”는 시의 유기적 통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의 기준이 될 만큼 형식과 내용이 그 시속에서 서로서로를 보충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벨러드 형식을 빌어 이야기체로 쓰여진 이 시는 약강 삼보격과 약강 사보격이 번갈아 나타나는 시행들이 abab의 각운을 맞추면서 결혼식 하객 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마법에 걸리게 하는 음악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도 두운과 중간운 등의 여러가지 소리 효과를 사용하여 의미를 보충하고 강화해 주고 있다.

상상력의 개념과 아주 가까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유기적 통일의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 유기적 통일은 대립의 화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울리지에게 있어 이 유기적 통일은 상상적 작품과 그것을 창조하는 상상적 마음을 기술하는 수단이다. 유기적 통일 이론은 뉴크리티시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Understanding Poetry*에서 Brooks와 Warren에 의해 제창된 시에 있어서의 형식과 의미 사이의 유기적 통일에 대한 현대적 비평 원리는 유기적 통일 이론의 모체가 된 코울리지의 “대립의 화합”으로 부터 많은 빛을 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현대 비평가들이 중요시 여기는 수사법 중에서 아이러니와 패러독스의 원리도 대립의 화합의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코울리지의 비평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심리학적이자 철학적인 것이며 코울리지 심리학과 철학의 근본 원리는 대립의 화합이다. 상상력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의 연결(copula)인데, 그것이 마음의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힘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 연결은 마음의 두가지 힘 뿐만 아니라 “동질성과 이질성, 일반과 구체, 이상과 심상, 개별과 대별” (*BL*, II, 12)의 반대 개념들의 균형이나 화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마음의 두가지 힘을 바탕으로 얻어진 상상력은 따라서 “인간의 전체 영혼을 활동하게 하는”(12) 힘이 된다. 코울리지의 사상에서 통일시키고, 생동감을 주는 상상력의 유기적 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힘이 없다면 그의 비평 체계는 단지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살펴 본 유명한 상상력의 정의는 실로 코울리지의 전체 비평 체계의 축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의 개념은 모든 코울리지의 사상- 그것이 문학적이건, 심리학적이건, 형이상학적이건, 철학적이건, 신학적이건-에서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코울리지의 두가지 상상력의 개념을 들여다 보면 그들 사이의 복잡하고 혼란한 구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된다. 일차적 상상력은 의식 자체의 창조적 행위를 수행한다. 반면에 이차적 혹은 시적 상상력은 일차적 상상력에 의해서 제공된 자료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용해되고, 펼쳐지고, 흩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예술 창조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의식적 의지와 공존한다. 그것은 창조를 추구하는 반면에, fancy는 이미 주어진 자료를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상상력은, 이성 (reason)이 이해

(understanding) 보다 상위의 능력이듯이, fancy 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성과는 달리 상상력은 이상을 형상화하며, 또 이해와는 달리 이미지를 추상화하기 보다는 이상화 할 수 있다. 이성은 인간의 감각이 미치는 범위를 초월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성의 반대인 이해는 우리가 현상을 다루는 능력을 말한다.

Summary

## Coleridge's Imagination in "The Rime of Ancient Mariner"

*Kang Sang-Deok*

Coleridge's famous definition of imagination as the poetic creation has become the basis of the concept of Romantic imagination. Nature and man are embodying each other in the creation of imagination. So we have nature as the agent acting upon imagination, and imagination as the agent acting upon nature. This is an example of the way Coleridge's imagination works in his poetry.

For Coleridge imagination is a power that does more than combine. It modifies and transforms. His theory of imagination rests on the reconciliation of opposites which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his philosophy. When the opposites are separated out, they are reconciled and united into one. The opposition between light and shade, moon and sun plays a key role in the poetic creation of "The Rime of Ancient Mariner" where two powers of mind, active and passive, are at work. And this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reconciling faculty of imagination.